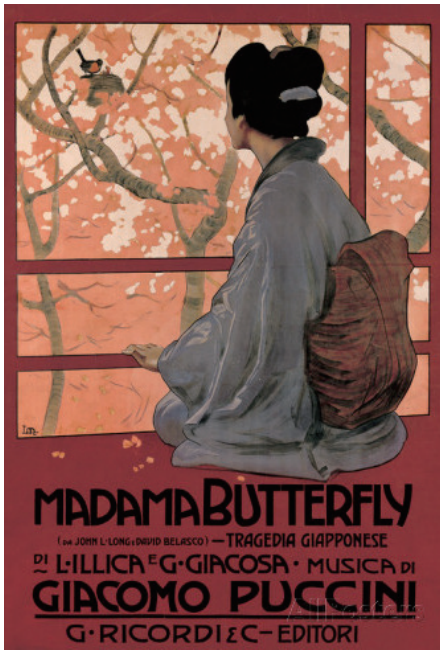
손수연 오페라평론가 /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홍보이사

울새가 둥지를 틀 때
돌아온다고 말한 남편

–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

여기 울새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다. 남편이 떠나면서 울새가 둥지를 틀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는 집에 찾아온 남편의 친구에게 묻는다. "미국의 울새는 얼마 만에 둥지를 트나요? 일본의 울새는 벌써 세 번이나 둥지를 틀었는데…."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인 남편을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부인의 이름은 초초(蝶蝶)다. 이름에 나비 접(蝶)자를 두 번이나 쓴 이 여인을 우리는 나비부인이라고 부른다.

초초상은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해군 중위 핑거톤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신부의 등장을 기다리는 오페라의 시작에서 이미 핑커톤은 초초상과의 이 결혼은 일시적인 재미를 위한 것이며 정식 결혼은 미국 여성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여주인공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예고되는 것이다.



이 오페라의 원작은 원래 미국 작가 루터 롱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 '나비부인'이었다. 이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하고 연출까지 맡은 벨라스코의 작품을 런던에서 감상한 푸치니는 대번에 그에게 '나비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제안을 한다. 영어로 된 대사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탁월한 흥행감각을 가졌던 그는 직감적으로 이 작품이 가진 이국적인 매력과 오페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감지했던 것이다.

푸치니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지고지순하고 희생적인 일본 여성에게 푹 빠져들었다. 자신의 화려한 여성편력에 지쳐 의부증에 걸려버린 부인에게 시달리던 그로서는 분명 꿈속의 이상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비부인의 환상과 함께하며 오페라 작곡에 특별한 애착을 기울였고 작품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초연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절치부심 끝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며 푸치니 오페라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남았는데 오늘날 아시아 사람의 시각으로 마냥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 작품이다.

남성과 여성, 서양과 동양에 대한 이분법적 이미지를 고착화한 작품이고 유약하고 희생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데 큰 역할을 한 오페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 '미스사이공'은 이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 서구 남성과 아시아 여성의 일그러진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를 만든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나비부인'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극적인 구성과 그것을 표현한 음악이 갖는 아름다움에 있다. 단 2막으로 이뤄진 이 오페라에서 1막의 초초상은 15살의 수줍은 새 신부이고 2막의 초초상은 3년이란 시간이 지난 18살의 아이 엄마다. 푸치니는 음악을 통해 한 여성이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원래 나비부인은 거의 공연 내내 무대를 지켜야 하고, 순진한 소녀와 강한 의지를 갖춘 여인의 음색을 동시에 노래해야 하므로 소프라노의 가장 어려운 배역 중 하나로 꼽힌다. 나비부인이 노래하는 아리아 '어떤 갠 날'은 꿈꾸듯 시작해서 피를 토하는 절규로 끝을 맺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한 외침이자 기다림에 지친 자신을 향한 다짐으로 초초상의 성숙한 변모가 또렷이 와 닿는 명곡이다.

드디어 남편의 배가 들어오고 꽃으로 꾸민 방에서 그를 밤새 기다리는 나비부인 뒤로 희미한 여명과 함께 들려오는 음악이 그 유명한 허밍 코러스다. 가사 한 줄 없이 허밍으로만 이뤄진 서정적이고 구슬픈 선율은 미동 없이 앉아있는 그녀를 감싸고 허망하게 공기 중으로 사그라진다. 아직은 알싸한 3월의 봄바람을 맞으며 벚꽃처럼 스러진 나비부인의 가련한 운명을 생각한다.